

“비즈니스 프렌들리, 中企 위한 것”

이 대통령, 여의도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치사 정부 적극적인 中企 발전 정책 펴터 부품소재 분야 기술 개발 노력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라고 말할 것은 중소기업에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중소기업인대회 치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길목만 터주고 규제만 없애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협력

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허리”라며 “300만 중소기업이 한명씩만 더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사람만 해고해도 300만명이 해고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나라살림이 잘 된다”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표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최저한 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성 검토를 간소화하는 등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고 항의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기업, 경제단체장들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치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300억달

러 규모의 대일 무역역조가 발생한 것은 우리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협력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강국, 중소기업이 희망이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각계 인사와 중소기업인 6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장충산 광주·전남중소기업연합회장(아름기공 대표)이 동남산업진흥장을 받는 등 12명이 산업훈장을, 동천사업(주) 강진용 대표 등 6명이 산업포장을 각각 받는 등 이날 중소기업인 230여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외국계 대부업체 ‘서민금융’ 장악

러시앤캐시 등 상위 5개 업체 자산 2조7천억 1년전보다 88% 급증... 순익 2,700억 144% ↑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한국의 서민금융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부업체에 따르면 페니슬라캐피탈, 러시앤캐시 등 자산기준 상위 5개 외국계 대부업체의 작년말 자산합의 2조7천802억원으로 1년전 1조4천782억원에 비해 88.1% 급증했다. 이들 5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순이익은 2천723억원으로 2006년 1천115억원보다 144.1%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부시장을 외국계 업체들이 빠르게 장악하며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출 부문의 최대사인 러시앤캐시(9월말 결산법인)의 자산은 2006년 9월 1천601억원에서 1년 뒤엔 7천150억원으로 급증했다. 계열사 합병 등 특수요인을 제외해도 자산 증가율은 59.5%에 달했다.

러시앤캐시의 지난해 순이익은 1천300억원으로 자산 상위 5개 대부업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계 신용대출 업체인 산와의 자산은 17.8%, 순이익은 9.0% 늘어났다.

메릴린치 계열의 주력대부대출 전문업체인 페니슬라캐피탈의 자산은 1년 만에 5천366억원에서 9천171억원으로 68.0%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06년에 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6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GE의 계열사인 GE리얼에스테이트의 경우 자산이 4천271억원으로 2.5%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542억원으로 1천97.2% 급증했다. 반면 SC제일은행의 계열사인 한국PF금융은 자산이 1천60.8% 급증했지만 적자는 10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연합뉴스



세균축적 가능한 구두

13일 서울 명동 ABC마트에서 코프트 슈즈 브랜드 ‘락포트’가 개최한 신발 세균 축적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이 물세탁이 가능한 가죽구두 ‘머신 워셔블’을 세탁한 뒤 세균 수치를 측정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등 7가지 주요정책 개혁엔 한국, 5년간 연평균 5.5% 성장”

리먼브라더스 전망

리먼브라더스는 13일 한국이 7가지 주요 정책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5년동안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리먼브라더스가 이날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 ‘South Korea : Reaching Higher’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9~2013년 한국의 잠재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연평균 4.5%에 달하겠지만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5.5%까지 높아지며 2013~2035년 4.3%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 차관은 “경기가 너무 어려울 일자리 없는 것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비자불가만 보고 단기간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조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기회를 맞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발전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새정부의 개혁과제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먼브라더스는 또 2005년 일인당 국민소득(GNI)이 미국의 85% 수준인 8만4천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만4천달러로 미국의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기술자본과 높은 교육수준을 꼽으며 반면 경제적 노동시장과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측면의 비효율성을 약점으로 제시하면서 인구, 노

동, 교육,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및 자본시장, 중소기업, 정부규제 등 7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참여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 및 가사보조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노동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이뤄져야 하고 자본조달을 위해 벤처캐피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光銀 후임행장 추천위원 오늘 선정

광주은행은 14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후임행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6명의 등기이사가 참석하는 이날 이사회에서는 5명의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5명의 위원은 현재 4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 주주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날 선정된 5명의 위원들은 향후 한 달여에 걸쳐 후임행장 후보자수를 포함한 선출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 후보자를 확정해 차기 주주총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금융지주는 오늘 30일 오픈

는 주주총회에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62)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13일 주주총회소집 결의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2012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사임한 장승우 전 한국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으로 윤 전 장관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재정부 차관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기하강, 재정지출로 보완해야”

최중경 재정부 차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일 최근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해 “감세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지만 재정지출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3% 포인트 인하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도 실질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경기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만 가지고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상승에 대해 그는 “과거 원화환율이 떨어지다보니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했는데 지금의 환율상승은 물가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가안정, 경수수지 개선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봐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경기가 너무 어려울 일자리 없는 것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비자불가만 보고 단기간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영성과 미흡’ 공기업 기관장 퇴출

국책은행장 연봉도 차관급 수준으로 낮춰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과감하게 해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기준으로 설정,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

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장 기본급의 경우 차관급의 15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은 3억2천500만원이어서 절반정도로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평균 1억50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경쟁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1년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와 매년 경영계약

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경영계획서 이행 성과를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개 주요공공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 임원추천위가 외부간섭 없이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유능한 CEO들의 응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서를 비공개로 접수하고 원서제출 시 자기소개서와 간단한 경영계획서만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전남대 스마트카드 시스템 개통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U-Campu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국제회의동 2층 옹벽홀에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13일 개통식을 가졌다. (사진)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전남대는 카드 하나로 도서관 출입에서부터 대출관리, 전자출석체크, 전자지불, 출입통제, 비접촉식 체크카드(Visa Wave) 등 금융기능을 적용한 학생증 발급 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학사



관리 등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체육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스텝포유 | [센터확장 60명채용] 신인카드 고객상담 사원 | 고졸/경력무관 | 2400~2600 | 05/16 | 062-412-5454 |
| ☎광일기공 | 일반사무직 여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000~1200 | 05/16 | 062-954-1725 |
| ☎투윈테크 | 전기기술자 경력사원 | 고졸/경력5년 | 회사내규 | 05/16 | 080-622-0100 |
| ☎빅마켓 | [시안델리]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16 | 062-650-2203 |
| 튜닝이이 | 생산부 도색기술 신입, 경력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19 | 062-372-9002 |
| Walker Korea | CMM 측정기사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0 | 062-956-4307 |
| ☎현대하이텍 | [품질관리/회계관리] 정규직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05/20 | 062-953-2240 |
| ☎오에이나라 | 회계,정부관리 및 컴퓨터 사무기기 A/S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5/20 | 062-224-6073 |
| ☎유로넷 | [고정급150만원]SK 텔레콤(광주)114 상담원 | 고졸/경력무관 | 2400~2600 | 05/22 | 011-299-7000 |
| 미래에셋생명보험☎ | [광주/전남]미래에셋생명 피아낸셜컨설턴트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3 | 062-369-0080 |
| 서울검사☎ | [광주공과대학]검사원 정규직 사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3 | 062-369-0790 |
| 중앙평생교육원 | 피아노강사 급구원(주5일근무제)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5/23 | 062-521-9930 |
| ☎우리 | 전기안전관리사 경력사원 | 고졸/경력2년 | 2600~2800 | 05/24 | 062-361-7106 |
| 에스제이이앤씨☎ | 환경, 재해영향평가업무자 | 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5/24 | 062-511-2622 |

(광주직접콜라 512-6210 제공)

쌀·밀가루 등 실제용량 표시량보다 2% 더 많아

쌀·밀가루·라면·과자 등 포장제품에는 보통 표시량보다 평균 1.7~1.9%가 더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일부터 대형유통업소 3곳에서 쌀 등 32개 품목 354개 포장제품을 구입해 표시량과 실제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98.3%가 표시량과 실제내용량이 같거나 실제량이 더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기업 제품은 표시량보다 평균 1.9% 정도, 중소기업 제품은 1.7% 정도 더 담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